제 32호 2022년 9월 15일

KTEE가 전하는 사역이야기

KTEE Ministries

사역 20th주년

TEE Times
티 타임즈

발행인 한순진 | 편집인 최융

사역 소식 ① : 재개된 현장 세미나

"현장은 늘 있어왔다, 이젠 새로운 사역 공간 더 얻었다"

사역 소식 ② : 22 하우투프리치 아카데미

"본문에 신실한 설교자로 쓰임 받게 하소서!"

계획된 세미나 안내

출처 unsplash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46 (서교동) 스튜디오빌딩 702호 | 02.334.3489 | ktee@ktee.org | www.ktee.org (한국) | www.teeusa.org (미주)

사역 소식 ①

"현장은 늘 있어왔다, 이젠 새로운 사역 공간 더 얻었다"

다시 돌아온 현장 세미나–"두려움 반, 그러나 즐거움 더 컸다!"

가을 학기를 앞두고 TEE 지도자 세미나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3년여 긴- 팬데믹 이후, 아직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기는 좀 무색한 상황이지만, 지역교회들과 함께 우리는 현장을 열었다.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열었던 현장 세미나, 그러나 생각보다는 즐거움이 더 컸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자 현장 세미나를 멈춰야 했다. 그런 상황이 어서 지나가기를 지켜보며 기다렸다. 그러나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악화되고 있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졌었다. 우리는 방법을 찾고 또 찾았다. 그 결과 온라인 웨비나가 대안이 되었다.

우리는 일찌기 온라인 웨비나를 시도한 사역 단체였다. 모두가 온라인 사역에 의구심을 가졌고, 익숙하지 않았기에 주저했었다. 거기에는 계몽이 중요했다. 우리는 교회들을 계몽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 모임에 관한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 그리고 현장에서 매월 마지막 주에 가졌던 세미나를 웨비나로 대치하였다. 매월 30명, 20명 작게는 10여명이 온라인에 접속하여 웨비나를 가졌다. 우리의 익스텐션센터나 선교 현장들도 TEE 학급모임을 화상으로 갖기 시작했다. 온라인 웨비나나 화상 모임은 우리에게 점점 더 익숙해져 갔다.

▲지난 8월 25-26일 서울 지구촌교회에서 재개된 현장 세미나

한편으로는 현장 세미나에 관한 갈망들이 있었다. 코로나 초기에 등록을 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자 세미나에 오지 못했던 분들 중에는 현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었다. 이번 8월 말의 현장 세미나는 그런 갈망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

현장은 늘 있어왔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사역 공간을 얻었다. 바로 온라인 사역이다. 즉 온 오프라인 사역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선물이기도 하다. 그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충분한 고난의 값을 치렀다. 그 결과 아프리카, 남/북미,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등 전세계 모든 지역으로의 연결이 가능해졌다.

TEE와의 만나는 지름길은 아무래도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서일 것이다. KTEE는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감사한 것은, 최근 웨비나(혹은 세미나)에 등록한 분들은 TEE를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고 참석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TEE를 먼저 만난 동역자님들은 TEE를 아직 만나지 못한 또 다른 동역자님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할 책임도 주어졌다. KTEE 사역은 그렇게 이어져 왔다. 아직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 상황이 점점 걷히고 있다. 지역교회들과 함께 우리의 사역도 활기를 띠며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열망한다.

사역 소식 ②

"본문에 신실한 설교자로 쓰임 받게 하소서!"

2022 Summer 하우투프리치 아카데미 마쳐

KTEE 미니스트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는, 지역교회들이 말씀 훈련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육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20여 년간 이 일을 감당해 오고 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도 이 일은 계속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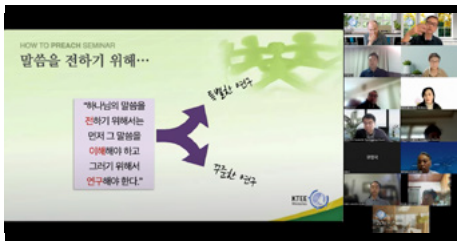
둘째는, 강단의 설교자들을 도와 그들이 본문에 신실한 설교자로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하우투프리치 아카데미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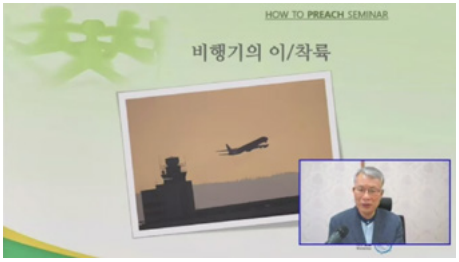
하우투프리치는 TEE/SEAN 과정이며 설교학의 가장 기본을 다루고 있다. 본문과 설교 목표, 설명과 적용, 예화, 서론과 결론, 설교 준비와 설교자 준비, 성경 해석 등을 다룬다. TEE 교재들이 그렇듯이 이 과정도 매우 쉽고 단조롭게 보일 수 있지만, 전문 교수 역할을 하는 텍스트 북을 따라 공부하며, 가이드를 따라 연습을 하고 토의를 해나가는 과정들을 통해 건실한 설교자로 세워지도록 고안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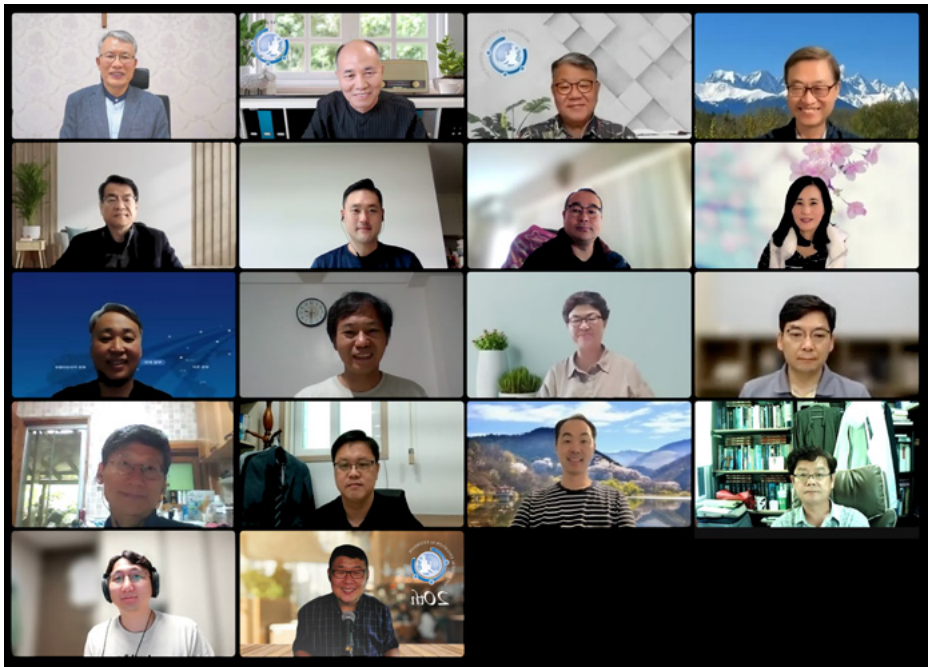
그간 KTEE 미니스트리에서는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2박3일 집중 세미나로 이 과정을 시도해 왔지만, 일정이 너무 짧아 늘 아쉬움을 가져야 했다. 이 과정은 충분한 개인 스터디와 교재가 요구하는 연습부분을 실행해 봄으로써 효과를 거두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 금년부터 7주 코스로 하우투프리치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된 것이다.

하우투프리치 아카데미는 연중 2차례, 봄과 여름에 열리게 된다. 이 과정은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며, 특별한 경우 현장 수업도 고려하고 있다. 금년에 처음 열렸던 이 아카데미는 지난 7월 11일에 시작하여 8월 22일까지 열렸다. 다음의 봄학기는 2월 6일부터 7주간 열릴 예정이다.

하우투프리치 아카데미는 KTEE의 훈련 사역과 함께 한국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꾸준하게 컨텐츠를 계발시켜 나갈 것이다.







▲ 지난 8월 22일 마친 하우투프리치 아카데미에 한국, 호주, 미국, 필리핀에서 참여하였다. 강의와 워크샵은 지구촌교회 조봉희목사를 비롯 KTEE 전문 강사진들이 수고하였다.

[하우투프리치 아카데미 소감들]

♠정진갑 목사

신학교 때 설교에 대해 배우고 나서 이제 다시 정리할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의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과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설교를 하다가, 지난 주에 이 훈련 과정을 적용해서 기준을 따라 전했는데, 전보다 훨씬 정돈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배운 설교의 틀이 마치 삽에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의 도구가 변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들의 성실한 지도와 조언 감사드립니다.

♠박성훈 선교사

이번 과정은 저의 설교에서 실수와 부족했던 점을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조언들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영국 목사

1~7강까지의 내용들이 많이 도전이 되고, 그간 생각지 못한 중요한 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점이 있다면, 본문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소주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적용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연길 목사

7주간 한 과 한 과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함께 나눈 그 본문으로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해보았는데, 좋은 열매가 맺힌 것 같습니다. 그간 설교에 대한 고민만 많고,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되었는데, 서론, 설교 목표 등을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소그룹으로 구체적인 나눔을 할 때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입장과 관점을 대하면서 새롭게 생각할 기회가 많아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함께 한 목사님들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정환 선교사

늘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다가, 오래간만에 배우는 자리가 새로웠습니다. 교재와 강의를 통한 학습뿐 아니라, 설교 실습을 구체적으로 해 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혜석 사모

사실 오래 기다리던 과정이었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재미있었지만, 사실 기초부터 설교까지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 하나 배워가면서 새로운 눈이 열린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더러 있으니 다시 교제를 차분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한 편으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설교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지훈 집사

집사로서 설교를 처음 준비해보고, 나눠보는 것이 저로선 참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또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제한 시간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새로운 훈련방법으로 우리나라 축구를 많이 변화시켰다는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앞으로 저의 신앙생활에도 이 경험이 아주 든든한 기본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서지미 집사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와 나눔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특별했고, 좋았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나름 준비해 본 설교를 나누었는데, 가감없이 적절히 지적받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KTEE 미니스트리 후원 요청

한국교회가 육성하는 TEE 사역이 되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제자를 삼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분명 선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긴 나날 동안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저희 KTEE 미니스트리는 이 힘든 여정을 지나온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를 응원하며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저희 KTEE 미니스트리는 금년 2022년이 사역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20년간을 한국교회와 선교 현장을 위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KTEE가 20주년을 맞으며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와 선교 현장을 위해 더 실질적인 사역을 펼치며 선교단체로 발돋음해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간 KTEE는 거의 자립적으로 사역하며 단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20년간을 그렇게 해왔으니 이 후로는 한국교회가 이 사역을 육성해 가는 것이 더 힘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거창한 교회나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교회와 사람부터 후원자가 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사역을 잘 알고, TEE 과정들을 경험한 분들과 교회가 이 사역의 후원자가 되어 주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가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TEE 미니스트리는 그간 수많은 선교 현장을 자비량으로 사역해 왔습니다. 해외 순회선교사 한 분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계속되며 많은 TEE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입니다.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 날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3/4분기 후원해 주신 분들(교회들)

- 지구촌교회 (김형석목사) 매월 20만원
- 노종길/노순미 (이사, 미주 나눔선교교회) 매월 200불
- 펄하버침례교회 (정성영목사) 1,200불
- 주태환/이성영 (본부 스탭) 100만원
- 아름다운교회 (이봉하목사) 600불

KTEE 미니스트리

후원 약정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KTEE 미니스트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후원하겠습니다.

후원자(교회) 정보

- 약정자 _____
- 교회명 _____
- 연락처 _____

후원 내용

- 정기 후원 ☐ 10만원 | ☐ 20만원 | ☐ 혹은 _____원 〈〈 매월
- 일시 후원 _____원
- 후원 계좌 : 국민 061701-04-056210 / KTEE 미니스트리

(추후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_____ (인 또는 서명)

KTEE Ministries

KTEE의 20번째 걸음

2022년 KTEE 사역계획

TEE 세미나

9월 29-30일 Webinar
10월 27-28일 지구촌교회
(TEE 디모데 세미나 예정)
11월 21-22일 Webinar

▲ PDF의 경우 위 모니터를 클릭하면
세미나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미주 USA

10월 17-18일 Webinar

How to Preach 아카데미 (7주)

내년 2월 6일 개강 예정

*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역은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환경에 따라 앞으로의
TEE 세미나는 **현장**과 **온라인**을
번갈아 열릴 예정입니다.

미주 세미나 신청 QR

국내 세미나 신청 QR